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하는 또래조정

김정민
수시교육팀



“아야! 너 일부터 그랬지?”

선혜(가명)는 체육시간이 끝난 후 배가 너무 고파 교실로 뛰어가다 같은 반 친구 소희(가명)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 전에도 소희가 복도에서 갑자기 등을 밀어 넘어질 뻔 했는데 오늘도 이런 장난을 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선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희와 말다툼을 벌였다.

또래조정이란 위와 같이 학생들 사이에서 평소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나 선배가 조정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래조정(Peer Mediation)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학교폭력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79개 학교가 또래조정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또래조정은 학생들간 갈등이 누적, 방치되어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 과정을 통해 대화와 타협, 설득의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도 연간 82조에서 2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높은 데는 여러가지 사회적 원인이 있겠지만 대화나 토론, 설득이나 협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문화가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학교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법,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부터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체험해보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초에는 ‘조정중재 아카데미(<http://edu.pac.or.kr>)’를 개설하여 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촉진하는 조정·중재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래조정 문화의 확산을 위해 10월부터는 또래조정 협력학교(창덕여중, 덕성여중)를 대상으로 또래조정 관련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모의 또래조정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또래조정이 각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아무쪼록 위원회와 함께 하는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갈등 해결문화를 실생활에서 체득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